

# 종부세·상속세 정치권 '화두'... 완화에 공감·각론엔 이견

국힘, 상속세율 인하 추진  
종부세 다주택자 증과세 인하  
민주, "세수 확충안이 먼저"  
실용적 관점 정책 수정 고민



“원구성 협상, 쉽지 않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진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면 개편 움직임을 보이면서 17일 종부세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세제 개편 논의는 최근 성태운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부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히면서 불이 붙었다. 구체적인 세율 인하 폭을 정부 고위 인사가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2대 정기국회에서 종부세·상속세 개편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목표 아래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당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지난 12일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어 '종부세 합리적 개편'을 논의했으며, 20일엔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종부세의 경우 전면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증과세 부담을 낮추는 수준의 법 개정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저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당 워크숍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의 부분적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며 "근본적 폐지는 재산세와 통합 문제로 가야 하므로 좀 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에 대해서도 상속세율 인하와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를 통해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원활한 기업 승계를 막아 결국 중산·서민층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이 당정 인식이다. 최근엔 주택 가격 급등으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데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먼저 따낸 뒤,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동향에 민감한 국민 여론, 감세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살피며 더욱 신중을 기하려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 핵심 당직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성실장의 전날 '최고세율 30%' 언급 등에 대해 "아직 당정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제기하는 세 부담 완화에 대해 세수 확충안을 내놓는 것이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세수 확충 방안을 내놓지는 않고 '부자 감세'라고 할 수 있는 상속세 개편과 종부세 폐지 추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이해식 수석대변

인이 최고위 회의 종료 후 전했다.

작년 정부가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보다 실제 국세가 56조4000억원 덜 걷히는 '세수 핑크'가 나타내다 올해도 30조원대 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상황에서 감세론을 펼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게 민주당의 문제의식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세수 핑크 30조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려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정사업은 할 수 있는 나뉘며 "세수 대책 전에 감세론을 꺼내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며 관련 논의에 손을 놓고 있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집값 상승과 경제 규모의 변화를 세제에 반영하고, 정파와 무관하게 경제 정책에 따른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스윙 보터'들의 표심을 잡으려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인식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했으며, 고인정 최고위원도 '종부세의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해 논의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전통적 지지층에서는 당 정체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들 세제 개편에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통일된 안을 만들어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세수 부족에 대한 대책도 없이 세제 개편을 얘기하는 것은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는 데 의원들이 공감하지만, 개별 세제 항목으로 들어가면 의견이 매우 다양하다"며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尹 국정 수행 긍정 30.1%·부정 66.0%

리얼미터 조사, 국힘 35.9%·민주 35.4%·혁신 13.2%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주 연속 30%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1%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1.4%포인트(p) 내린 수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1주 37.3%를 기록한

이후 30% 초반대에서 횡보 중이다. 부정 평가는 0.9%p 상승한 66.0%로 조사됐다.

권역별로 광주·전라(2.9%p ↑)에서 올랐고 인천·경기(2.3%p ↓), 부산·울산·경남(2.0%p ↓), 대전·세종·충청(1.7%p ↓), 대구·경북(1.1%p ↓) 등에서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50대(1.6%p ↑)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3.7%p ↓), 중도층(2.6%p ↓)에서 떨어졌다.

한편,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는 국민의힘 35.9%, 더불어민주당 35.4%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해 국민의힘은 1.4%p 상승했고, 민주당은 0.2%p 하락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13.2%, 개혁신당 4.9%, 새로운미래 1.5%, 진보당 1.5%, 기타 정당 1.5% 등이었다. 무당층은 6.2%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8%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국힘 차기 대표 선호도 한동훈·유승민 '접전'

갤럽 조사, 유 29%·한 27%...국힘 지지층은 한 59%·유 6%

국민의힘 차기 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접전을 보이고, 당 지지층과 보수층에 한해서는 한 전 위원장이 선두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대표 선호도를 묻은 결과, 응답자의 29%가 유 전 의원을 꼽았다. 한 전 위원장은 27%로 뒤를 이었다.

안철수 의원은 10%, 나경원 의원은 9%, 원희룡 전 장관은 6%, 김재섭 의원은 2%, 윤상현 의

원은 1%를 기록했다. '없다'는 응답은 12%, '모름·응답 거절'은 4%였다.

응답자를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한 전 위원장이 59%로 압도적 1위로 집계됐다. 원 전 장관이 11%, 나 의원은 10%, 안 의원은 7%다. 유 전 의원은 6%, 김 의원은 1%, 윤 의원은 1%다. '없다'는 응답은 3%, '모름·응답 거절'은 2%였다.

보수 성향 응답자 중에서도 한 전 위원장이 44%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유 전 의원은 14%, 나 의원과 원 전 장관은 각각 10%로 조사됐

다. 안 의원은 9%였다. 중도 성향에서는 유 전 의원이 34%로 선호도가 높았고, 한 전 위원장은 25%를 얻었다. 안 의원은 9%, 나 의원은 8%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4%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